

〈宗訓〉

忠孝·德禮·勤謹·恭儉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형제우애하고 덕을 닦고 예의를 익혀 남을 존경하며 부지런하고 공경한 몸가짐으로 성실하고 검소한 삶을 살지이다.

清州韓氏報

發行人 韓 瑀 洙
編輯人 韓 東 元
主 幹 韓 萬 政
印刷人 金 俊 培
光世堂印刷 798-9006~7

(우 : 110-719) 서울시 종로구 내수동 167 세종로 대우빌딩 복합동 602호

소식지

購讀申請 ☎ 720-6370~1 FAX 720-9215

‘7교인터넷한글대동족보’ 제작 순조롭게 진행

각 종파 일가들 접수 잇달아... 외국 거주 일가들도 신청
현수회장 “후손들을 위한 불가피한 사업, 거종적 참여를...”



琯洙 회장

중앙종친회가 추진중인 ‘청주한씨7교인터넷한글대동족보’ 편찬작업은 7월중순 현재 전국적으로 각 종파의 일가들은 물론 국외에 거주하는 일가들까지 ‘가계보와 인적사항’ 등재 신청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6교대동족보를 한글로 번역하는 작업도 활발하게 병행되면서 예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서류신청 안내 하단 광고·관련기사 문답풀이 2면〉

지난 5월17일부터 일가들의 ‘가계보와 인적사항’ 접수를 시작한 후 이조정랑공과, 예빈운공과, 문정공과(일부), 참의공과, 충성공과, 장열공과, 절도공과, 충정공과, 감사공과 등 모든 종파 일가들의 신청이 잇달고 있으며, 미국·독일·중국등 외국에 거주하는 일가들도 신청을 해오고 있다.

신청을 마친 대부분의 일가들은 한결같이 “후손들에게 족보를 물려주려면 파종보(派宗譜) 보다는 중앙회에서 제작하는 ‘청주한씨대동족보’(大同族譜)를 물려주어야 하겠기에 신청을 서둘렀다”고 말했다. 또한 많은 지역종친회, 파종회, 개인들로부터 신청절차, 작성요령등에 관한 질의가 쇄도하고 있으며, 일부지역 종친회에서는 지방종친회 모임등에 중앙종친회 임원들이 출석하여 작성요령등을 해설해 주도록 요청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중앙종친회에서는 전국적으로 일고 있는 일가들의 관심과 호응에 부응하기 위해 중앙회장을 비롯한 편찬위원회 임원들이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전국 각지의 시·도·군·구 종친회와 파종회, 소문중을 순회,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琯洙중앙종친회장은 편찬사업과 관련, “① ‘대동족보’는 중앙종친회만이 제작할 수 있으므로 이번 기회에 등재하지 않으면 귀중한 가보(家寶)를 자손들에게 물려줄 기회를 잃게 될 수 있으며 ② 한문으로 등재된 ‘6교대동족보’ 내용을 한글로 번역함은 물론 ‘7교인터넷한글대동족보’에 새로 등재되는 일가들의 ‘가계보와 인

적사항’도 모두 한글로 표기하기 때문에 한글세대인 후손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고 ③ 컴퓨터에 입력하여 인터넷으로 구축하기 때문에 세계 어느곳에서도 컴퓨터만 있으면 족보를 찾아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정이나 보충도 즉시 할 수 있어 ‘대동족보’의 제작은 7교가 마지막이 될 수 있다”고 “7교인터넷한글대동족보”의 특징들을 지적, “80% 이상의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상황에서, ‘7교인터넷한글대동족보’ 제작은 후손들을 위한 필요하고도 불가피한 선택이므로 종파(宗派)를 초월하여 거종적(舉宗的)으로 참여해야 할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한씨중앙종친회 琯洙 명예회장이 영국의 최고훈장인 ‘대영제국 명예기사’(KBE·honorary Knight of the most excellent order of the British Empire) 작위를 받아 본인의 명예는 물론 한씨가문을 크게 빛내주고 있다. 지난 5월28일 주한 영국대사관은 “한승수 의원(당시는 16대의원)이 한·영관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평가해 영국여왕이 작위를 수여하기로 했다”고 승수명

한승수 명예회장 영국 최고훈장 받아
한국인으로 세 번째... 국위 크게 선양

를 수여하기로 했다”고 승수명예회장에 알려왔다. 한국인으로서는 김상만 전 동아일보회장(한·영협회 회장 역임), 강영훈 전 총리(주영대사 역임)에 이어 세 번째이다. 1963년 영국 요크대학에 유학, 경제학박사를 받으면서 영국과 인연을 맺은 승수 명예회장은 계속 영국과의 관계를 유지, 1997년에는 요크대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았

으며 이후 정계에 입문하여 국회의원인 된 후에는 ‘한·영의원 협의회’ 회장으로 활약했다. 부총리와 3개부처장관, 유엔총회 의장등 국내외적으로 여러 요직을 역임한 그는 양국의 정부·경제계·학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한영미래포럼’ 회장직도 12년 동안이나 맡아 한·영 양국간의 유대와 친선에 크게 기여했다. 〈관련기사 9면〉

「청주한씨 7교인터넷한글대동족보」에 올릴 「가계보와 인적사항」 서류 신청 안내

‘인터넷한글대동족보’ 제작이 현재 활발히 진행중입니다. ‘청주한씨대동족보’가 한글로 번역되어 인터넷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컴퓨터만 있으면 세계 어느 곳에서든 인터넷으로 우리 자손들이 조상의 업적과 뿌리를 한눈에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전자화 되는 것입니다. 「가계보(家系譜)와 인적사항」이 한글로 등재되는 「청주한씨 7교인터넷 한글대동족보」는 자손들에게 물려줄 가장 값진 가보(家寶)가 될 것입니다. 읽기 쉽고 찾기 쉬운 ‘인터넷한글대동족보’에 등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빠짐없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 「가계보와 인적사항」 서류 접수기간 2004년 5월 17일~2005년 4월 30일
- ◆ 「가계보와 인적사항」 서류 신청요령 대동족보편찬위원회, 문중대표, 「가계보와 인적사항」(수단) 담당이사 및 지역종친회에 비치된 「가계보와 인적사항」기록용지, 범례, 「가계보와 인적사항」기록견본과 청주한씨중앙종친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하되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편찬위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가계보와 인적사항」 입력비
입력비내역 : 기혼자 5,000원
미혼자 5,000원

- 여(사위 포함) 5,000원
- ◆ 「가계보와 인적사항」 및 「가계보와 인적사항」 입력비 제출처 편찬위원회 사무실 : 서울종로구내수동167 세종로 대우빌딩 복합동 602호
전화 : 02)720-6370~1, 팩스 : 02)720-9215
- ◆ 「가계보와 인적사항」 입력비 입금 계좌번호 국민은행 009901-04-004914
예금주 : 한현수(청주한씨7교대동족보)
- ◆ 가승보(家乘譜), CD 등도 신청하는 경우 제작해 드립니다.
(단, 제작비는 본인 부담)

청주한씨 ‘7교인터넷한글대동족보’ 편찬위원회 위원장 한 현 수

◆ 본회 홈페이지 : www.cheongjuhan.net

“중앙종친회의 재정이 어렵습니다”

1년에 2만원만 내면 종보 독립채산

중앙종친회에는 기본재원이 없습니다. 임원들의 회비와 헌성금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때 송구스러운 말씀이오나 중앙종친회는 현재 재정난을 겪고 있습니다. 각급 임원들의 운영회비 납부가 저조하고 단체종보비와 개인종보비가 제대로 납입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타가 공인하고, 우리 스스로 자긍하는 명문종의 명문 청주한씨의 후예들입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100만 청주한씨'로 통칭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명문의 '청주한씨'가 종친회 조직 하나를 제대로 꾸려가지 못하고, 정보소식지인 '청주한씨보'마저 적자로 만들 수 밖에 없는 형편이 되고보니 참으로 안타깝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남들이 알까봐 두렵기까지 합니다.

1년에 단 한번 출연(出捐)하는 운영회비(이사 10만원)와 종보비(2만원)가 제대로 납입되지 않는 원인은, 물론 경제적인 부담도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종친회에 대한 '무관심'의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무슨 일에서든 '무관심'은, 좋지않

은 결과를 가져오기 쉽습니다. 종친회에 대한 '무관심'은 어쩌면 중앙이든 지방이든 종친회 조직의 쇠락(衰落)을 가져올 수도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청주한씨'를 '명문종의 명문'으로 이어줄 수 없는 우(愚)를 범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별표에서 볼 수 있듯이 종친에 대한 애정으로 과분한 출연을 한 고마운 일가들도 있습니다만 총액면에서는 미미하다 하지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종친에 대한 애정으로 종친회를 활성화 하는데 십시일반(十

匙一飯)으로 동참합시다. 자선사업이나 기부문화의 바탕과 정착은 참가 구성원의 저변확대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1년에 2만원입니다. '청주한씨보'를 받아보는 일가들이 1년에 2만원만 보내면 종보(宗報)발간사업은 독립채산으로 궤도에 오를 수 있고, 회비수율이 높아지면 중앙종친회의 운영도 활성화되고 사업추진도 활기를 띠게 될 것입니다. 일가들의 적극적 동참을 기대합니다.

※종보사업현황

기업체 일가 입금현황

수입

과 목	예 산	누 계
개인성금	22,000,000	7,111,000
단체성금	11,000,000	2,900,000
광고료	14,000,000	500,000
합 계		10,511,000
수입-지출		-13,743,224

지출

과 목	예 산	누 계
수 당	12,000,000	5,200,000
편집비	900,000	376,200
인쇄비	12,800,000	8,002,500
발송비	15,000,000	8,334,880
용역비	4,700,000	2,332,644
잡비	100,000	8,000
합 계		24,254,224

업체명	이름	주소	04년 종보비	장학기금
(주)우수산업	한재희	서울 금천구 독산동 333번지 22호		10,000
한용내장건설(주)	한무섭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4번지 2호 동아빌딩 610호	100,000	100,000
(주)한일테크라인	한일석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31-3	100,000	
한산산업	한상욱	서울 중구 충무로2가 62-7 뉴서울빌딩 1102호	100,000	
(주)우남유통	한문장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451번지	50,000	100,000
명신기업(주)	한명섭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4동 627-3	100,000	
(주)제니스	한영수	경기 용인시 이동면 화산리 189번지	30,000	
외우(주)	한인규	부산 부산진구 부전1동 260-1번지 외환빌딩 3층	50,000	50,000
한창산업(주)	한대곤	대구 남구 대명11동 1200번지 12호	30,000	
(주)정문기업	한수경	인천 서구 오류동 434-209	50,000	50,000
대덕정밀(주)	한준석	경남 양산시 하북면 백록리 648번지 11호	100,000	100,000
(유)일동건설	한산업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844번지 3호	30,000	50,000
세무사	한유철	서울 강남구 대치동 889-5 상제리제센타 A-1314	40,000	40,000
합 계			780,000	460,000

문답풀이

(7교인터넷한글대동족보 관련)

문 6교대동족보에 누락된 학력·경력, 변동사항(출생·사망·출가여인 등)등은 어떻게 합니까?

답 이름 옆에 부기되는 학력·경력등 주(註)에 관한 요령은 「법례」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변동사항은 상세하게 기록하여 보내면 됩니다.

문 「가계보와 인적사항」을 입력하는 비용은 얼마이며 어디로 어떻게 입금하면 됩니까?

답 기혼자, 미혼자, 여(사위 포함) 공히 건당 5천원입니다. 단, 6교대동족보에 누락된 상계(上系)는 돌

아가신 분의 인적사항을 올리는 비용으로 건당 5천원입니다.

비용을 입금할 수 있는 계좌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은행 009901-04-004914 예금주: 한현수(청주한씨 7교대동족보)

문 6·25 당시 가족이 피살되거나 실종되고 가족이 소실되어 족보가 없거나 모르면...?

답 종과회장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보내면 됩니다.

문 「가계보와 인적사항」서류는 어디로 보내야 합니까?

답 「청주한씨 중앙종친회」(주소·전화번호·팩스 이용)로 보내면 됩니다.

주소: 서울시종로구내수동167 세종로 대우빌딩 복합동 602호

☎ 전화: 02-720-6370~1 FAX:02-720-9215

문 「가계보와 인적사항」서류 접수마감은 언제까지입니까?

답 2005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문 선대(先代)를 모르는 일가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답 6교대동족보 또는 전에 편찬된 족보등을 참고로, 원적지(原籍地) 또는 세거지(世居地), 본적등을 기입, 족보 끝부분에 입력할 예정입니다.

(기타 의문사항은 중앙종친회에 전화나 우편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회비 자진납부로 재정난 타개”키로

제6차 전담부회장 실·부장회의

중앙종친회 전담부회장과 실·부장들은 지난 7월12일 정오 본회 회의실에서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회의를 열고 종친회 운영 전반, 특히 최근에 직면하고 있는 재정난 타개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琯洙중앙종친회장은 개회사에서 “임원들의 운영회비, 종보비등의 현금 납부가 저조하여 사무처 임직원들에게 지급하던 최소한의 거마비 조차도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이 어려운 형편이며, 특히 독립채산으로 운영되어야 할 종보발행계정에서는 상반기중 1천2백만원의 적자를 볼 정도로 종보비 수율이 저조하다”고 지적하고 “이사 임원들을 포함한 모든 임원들이 운영회비와 종보비 납부에 솔선수범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많은 논의 끝에 운영회비, 종보비 등의 수납 부진으로 어려움에 처한 종친회의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각급 임원들은 운영회비와 종보비를 솔선하여 납부하고, 각 시·도회장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운영회비 및 종보비 납부를 독려해 주도록 촉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회의 벽두 현황 보고에서는 ①7교인터넷한글대동족보' 편찬이 3천쪽 이상 진행되었고 ②역사전시관 건립도 계속 추진중이며 ③세종로 대우빌딩 816호 임대건으로 사업자등록을 했으며 ④양명 상임고문이 장학회에 기증한 부동산 임대소득(월 90만원) 처리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개설했다는 보고가 있었다.

대구·경북종친회 정기총회 爽鎬일가 신임회장으로 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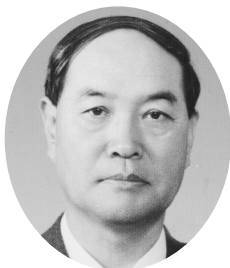


대구·경북종친회는 지난 5월 1일 종친회관에서 80여 일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4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爽鎬 일가를 신임회장으로 선임했다. 임기가 만료된 宗烈 전회장은 명예회장으로 추대되었다. 새로 구성된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 ▲고문: 錫東(28세·양절공파), 碩愚(30세·몽계공파)
- ▲상임고문: 台東(34세·정랑공파)
- ▲고문: 鶴烈(30세·양혜공파), 在永(33세·문정공파)
- ▲명예회장: 宗烈(30세·양혜공파)
- ▲회장: 爽鎬(28세·문정공파)
- ▲수석부회장: 相鉦(31세·절도사공파)
- ▲부회장: 康落(28세·절도사공파), 義吉(32세·안양공파), 海龍(33세·정랑공파), 永洙(31세·이양공파), 學洙(32세·충성공파), 海東(32세·양절공파), 泰山(32세·봉익공파), 希羸(33세·참의공파)
- ▲감사: 敬潤(33세·안양공파), 一教(29

세·몽계공파)
▲총무 겸 재무이사: 錫寅(30세·충정공파)

서울 동작구 종친회 정기총회 새회장에 相洛일가 선출



서울 동작구 종친회는 지난 5월 23일 오후 상도해물탕집에서 20여명의 일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월례회를 겸한 정기총회를 열고 相洛

(32세·장도공파) 일가를 신임회장으로 선출하고 相云 직전회장을 고문으로 추대했다.
▲ 고문: 相云(신임), 駿錫, 明憲, 점섭
▲ 총무: 鎭洙(연임)

서울 마포구종친회 월례회 일가들간 친목 단합 대회

서울 마포구종친회는 지난 6월25일 오후 신촌용궁수산에서 16명의 임원과 일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월례회의를 열고 일가들간의 단합을 다졌다.

중앙회 屋燮부회장은 마포구종친회의 요청에 따라 이날 회의에 참석, 홍보차원에서 “인터넷한글대동족보” 제작의 당위성과

서울종친회 파주에서 하계단합대회

현수회장 “서울종친회가 중추적 역할해 달라…”

상서회장 “구종친회 활성화돼야 서울·중앙도…”



서울시종친회(회장 相瑞) 회장단과 총무단등 약 30명의 임원들은 지난 7월 20일 정오 琯洙중앙회장, 屋燮부회장이 내빈으로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교하리 소재 ‘그 옛날 농장’(일가 소유)에서 단합대회를 열고 종친회의 단합과 친목을 다졌다.

상서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각 구종친회가 종친회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성화 되어야만 서울시종친회가 힘을 얻어 활성화될 수 있으며 그래야만 중앙종친회가 굳건한 기반위에서 각종 숙원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 이라고 강조하고 “우리 서울시종친회가 중앙종친회의 운영과 사업추진에 선도적으로 참여하자”고 역설했다.

이어 현수중앙회장은 축사에서 “어떤 조직에서든 기초적인 하부조직이 역동적으로 활성화 되어야만 상부조직이 발전할 수 있다”고 말하고 “따라서 우리들 종친회 조직에서도 각 지역·

지구종친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성화되어야만 중앙종친회가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므로 서울시종친회가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원들은 단합대회에 앞서 이날 오전 파주군 조리면 봉일천리 소재 공릉(恭陵·예종대왕비 장순왕후 묘), 순릉(順陵·성종대왕비 공혜왕후 묘), 이랑공(吏郎公·휘 瑞鳳)묘소를 차례로 참배했다. 장순왕후와 공혜왕후는 상당부원군 한명회의 셋째와 넷째 딸이며, 이랑공은 단종3년에 좌익원종공신(佐翼原從功臣) 2등에 녹훈된 조선조 초기의 문신이다.

이에 앞서 서울종친회는 지난 6월25일 낮 12시 서울시내 은행나무부예에서 회장단회의를 갖고 중앙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7교인터넷한글대동족보’ 편찬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홍보등 지원사업에도 힘을 보태기로 했다.

신청요령등을 설명했다.

강북·도봉종친회 40여명 선조 묘소 참배

서울 강북·도봉구종친회(회장 泰教) 임원들과 일가 40여명은 지난 7월17일 관광버스를 이용, 기찬총무의 안내로 경기도 여주군 강천면 부평리 소재 17세조 문천공, 18세조 한림공, 19세조 구암공, 생원공, 20세조 정운공 묘소를 차례로 참배한 후 百禧회장 안내로 흥천면 개선리 소재 16세조 참관공, 19세조 석탄공 묘소도 참배하고 귀로에는 세종대왕릉을 참례했다.

대교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선조묘소를 참배하고 조상을 잘 모시는 후손이 조상의 음덕을 받는다”고 말하고 “조상을 잘 모시는 종친회가 되도록 노력하고 화합과 친목을 다져나가자”고 강조했다.

지난 6월의 월례회에는 중앙회 奎華상무와 範錫총무가 참석, ‘인터넷한글대동족보’에 관한 홍보를 했다.

서울 구로구종친회 월례회 활성화방안과 족보 홍보

서울 구로구종친회는 지난 6월23일 17명의 임원과 일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월례회의를 열고 종친회의 활성화방안등을 논의했다.

중앙회에서는 範錫총무가 참석, ‘인터넷한글대동족보’ 제작에 관련한 신청절차등에 관해 홍보활동을 폈다.

경기, 부천시종친회 신임 회장에 潤錫일가 선출

경기도 부천시종친회는 지난 4월17일 오전11시 원미구청 회의실에서 2004년도 정기총회를 갖고 임기가 만료된 基元회장의 후임으로 潤錫(양절공파) 일가를 신임회장으로 선출하고 6월24일 이·취임식을 거행했다.

윤석회장은 인사말에서 기원 전회장의 헌신적인 재임중의 노고를 치하하고 “부천시종친회의 활성화를 위해 모든 일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학기금 출연에 감사 드립니다”

장학기금은 가장 이상적이고 생산적인 투자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안타깝습니다. 현재 1급 이상 공무원 238명중 놀랍게도 한씨일가는 단 1명 한덕수(국무조정실장)뿐입니다. 정계를 비롯 각계에서 한문을 빛내는 일가들이 줄어들고만 있는 것 같아 명문의 명맥이 위기를 맞는 느낌입니다. 인재 양성이 시급합니다.

장학기금 출연에 참여하고 있는 일가분들이 현재 2천명에도 못미치고 있습니다.

사랑의 “리퀘스트” 아시죠! 모든 일가들이 동참하는 자발적인 참여로 장학회관 건립에 힘을 모읍시다.

청주한씨 중앙총친회 · (재)청한장학회

“정성 어린 성금에 감사 드립니다”

여러 일가분들의 정성 어린 성금, 회비, 종보비 등은 종친회 운영의 활성화와 활력소가 되어 한문의 명예를 빛내고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참여해서 단합하고 돈목과 화합을 이룩합시다”

2003년도 미납분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2004년 올해에는 모든 일가들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앙총친회 회장 한현수

세입세출실적표

수입 단위 : 원

관	항	예산액	5~6월	누 계	예산대비율
이월금	전년도이월금	64,257,644		64,257,644	
회 비	운영비, 회의비	54,700,000	4,300,000	20,300,000	37%
찬조금	일반, 유적	25,000,000	1,600,000	6,300,000	25%
기본재산	토지, 건물임대료등	22,330,000	1,076,700	3,281,700	15%
종보사업비	종보비, 광고료등	47,000,000	2,406,000	10,511,000	22%
문화사업비	영상록, 대동보등	61,751,000	2,740,000	9,520,000	15%
기 타	임대보증금, 차입금등	205,000	26,015,293	26,015,293	12690%
합 계		275,243,644	38,137,993	140,185,637	

지출

관	항	예산액	5~6월	누 계	예산대비율
회의비	각종회의비	15,200,000	50,000	8,241,752	54%
경상비	임금, 관리비등	107,711,000	13,692,501	40,383,000	37%
현창사업	제전비등	28,201,000	1,917,000	3,230,440	11%
종보사업	인쇄비등	45,500,000	8,016,926	24,254,224	53%
문화사업	역사영상록등	26,600,000	43,000	685,120	3%
현안사업	홈페이지운영비등	20,000,000	190,300	381,000	2%
기 타	임대보증금, 차입금환불등	5,000	9,000,000	31,050,000	621000%
예비비	과목외	32,026,644	5,254,620	5,660,950	18%
합 계		275,243,644	38,164,347	113,886,486	

* 적자액 △37,958,493(수입 - 전년도 이월금 - 지출)

일반찬조 헌성금(5~6월분)

현수회장(중앙회장)	3,000,000
갑수고문(전 농림부장관)	1,000,000
철웅자문위원(제천시회장)	500,000
상홍이사(서울 중랑구)	100,000

일반찬조금 합계 4,600,000

운영회비(5~6월)

선종 부회장(조직담당)	1,000,000
희경 부회장(여성부회장)	1,000,000
상서 부회장(서울시회장)	700,000
용섭 부회장(대전시회장)	500,000
상오 자문위원(서울 마포구)	200,000
기석 운영위원(서울 동대문구)	200,000
천석 자문위원(서울 종로구)	200,000
남수 자문위원(서울 종로구)	200,000
희수 운영위원(마포구회장)	200,000
영덕 이사(홍보부장)	100,000
상홍 이사(서울 중랑구)	100,000
기정 이사(서울 구로구)	100,000
기원 운영위원(부천시회장)	100,000
장석 이사(경기 수원시)	100,000
상우 자문위원(경기 군포시)	100,000
기연 이사(전북 전주시)	100,000
만정 이사(경기 고양시)	50,000
원해 이사(경기 양주시)	30,000
종수 이사(부산 수영구)	20,000

운영회비 총합계 5,000,000

단체종보비(5~6월분)

군산시총친회	100,000
수원노림의상종중	100,000

개인종보비(5~6월분)

기흥(경기 하남시)	100,000
봉희(주소불명)	100,000
광식(서울 마포구)	50,000
충현(서울 노원구)	50,000
영수이사(대구 중구)	50,000
상정(대구 남구)	50,000
인규(부산 부산진구)	50,000
태희(울산 남구)	50,000
수경(인천 서구)	50,000
희수(전북 군산시)	50,000
만익자문위원(경기 고양시)	30,000
장석이사(경기 수원시)	30,000
광수(서울 마포구)	30,000
경창(서울 구로구)	30,000
태동(서울 마포구)	30,000
동수(서울 도봉구)	30,000
춘부(서울 중구)	30,000
원기(서울 성북구)	30,000
의엽(경기 성남시)	30,000
영수(경기 용인시)	30,000
성부(경북 상주시)	30,000
병수(경북 성주군)	30,000
규평(광주 서구)	30,000
백진(충북 청원군)	30,000
상우자문위원(경기 군포시)	20,000
창우자문위원(대전 서구)	20,000
종수이사(부산 수영구)	20,000
규환(서울 중랑구)	20,000
경석(서울 송파구)	20,000
창제(서울 양천구)	20,000
용관(서울 마포구)	20,000
성규(서울 구로구)	20,000
기문(서울 송파구)	20,000

석만(서울 광진구)	20,000
기문(서울 영등포구)	20,000
창우(서울 송파구)	20,000
명석(서울 구로구)	20,000
봉수(서울 영등포구)	20,000
봉희(경기 의정부시)	20,000
재현(경기 용인시)	20,000
병덕(경기 화성시)	20,000
민수(경기 김포시)	20,000
상우(경북 영천시)	20,000
영탁(경북 영덕군)	20,000
준표(대구 수성구)	20,000
영우(부산 서구)	20,000
명구(부산 수영구)	20,000
정도(부산 기장군)	20,000
영곤(울산 울주군)	20,000
상준(인천 남구)	20,000
정수(광주 북구)	20,000
덕구(대전 동구)	20,000
공희(충남 청양군)	20,000
만응(충남 서산시)	20,000
상훈(경기 성남시)	15,000
성훈(서울 중구)	10,000
영우(서울 영등포구)	10,000
공필(서울 동작구)	10,000
옥현(서울 동작구)	10,000
철수(서울 도봉구)	10,000
택용(서울 노원구)	10,000
남표(서울 동대문구)	10,000
영희(서울 마포구)	10,000
용석(서울 강남구)	10,000
리우(서울 성북구)	10,000
상욱(서울 영등포구)	10,000
덕수(서울 도봉구)	10,000
진식(서울 구로구)	10,000
봉기(경기 용인시)	10,000
옥현(경북 영천시)	10,000
은섭(인천 강화군)	10,000
영수(경남 김해시)	10,000
국동(인천 남구)	1,000

개인종보비 총합계 1,806,000

장학기금 납부 내역(5~6월)

고유번호	이 름	5월~6월	총합계
10	양명(시외공공중)	2,700,000	192,700,000
1695	선종(전북 김제시)	1,000,000	1,000,000
957	기석(서울 동대문구)	200,000	630,000
128	광식(서울 마포구)	50,000	430,000
346	상학(부산 부산진구)	20,000	400,000
504	일웅(경북 구미시)	20,000	380,000
1505	상한(경기 고양시)	20,000	310,000
1690	윤희(전북 임실군)	300,000	300,000
1686	영덕(서울 중구)	300,000	300,000
767	기원(경기 부천시)	100,000	250,000
309	희수(서울 동작구)	20,000	190,000
450	백진(충북 청원군)	20,000	180,000
1647	태희(울산 남구)	150,000	150,000
1606	기연(전북 전주시)	100,000	150,000
1208	상수(전북 임실군)	100,000	130,000
1592	의엽(경기 성남시)	30,000	130,000
218	용관(서울 마포구)	20,000	130,000
1081	기운(강원 강릉시)	20,000	130,000
344	상준(인천 남구)	40,000	120,000
383	기문(서울 송파구)	20,000	120,000
608	영수(경남 김해시)	20,000	110,000
1685	동근(전남 보성군)	100,000	100,000
981	공희(충남 청양군)	20,000	90,000
884	정수(광주 북구)	50,000	70,000
1688	인규(부산 부산진구)	50,000	50,000
1692	수경(인천 서구)	50,000	50,000
1693	봉희(주소불명)	50,000	50,000
1687	광수(서울 마포구)	50,000	50,000
728	희수(경기 고양시)	10,000	50,000
466	은섭(인천 강화군)	10,000	50,000
574	상조(충북 충주시)	10,000	50,000
1489	택용(서울 노원구)	10,000	40,000
1689	원해(경기 양주시)	30,000	30,000
1691	동희(부산 수영구)	30,000	30,000
1644	상욱(서울 영등포구)	10,000	30,000
1694	재희(서울 금천구)	10,000	10,000
	계	5,740,000	

장학기금 총액(2004년 6월말 현재) 1,039,193,655

춘천중친회 청장년회 2004년도 하계야유회 가져

춘천시중친회 청장년회는 지난 6월27일 춘천시 서면 산까치가든에서 37명의 일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친목을 다지는 2004년도 하계야유회를 갖고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이날 모임은 중앙중친회 명예회장인 兪洙 청장년회 고문과 강원도 교육감인 장수 일가가 참석, 격려와 대화의 시간을 가졌고 兪洙 중앙중친회장이 금일봉을 보내와 그 어느때 보다도 뜻 깊은 행사가 되었다.

또한 상용 직전회장이 기증한 선풍기 3대를 한씨 가문에 시집 온 며느리들이 추첨을 하여 상품으로 받았으며, 족구와 팔씨름 등 여흥으로 유익하고 즐거운 야유회를 마쳤다.

성종때 우의정 지낸 襄惠公묘역 인천시 지방문화재로 지정

조선조 성종 때 우의정을 지낸 청천부원군 양혜공(휘·伯倫)의 묘역이 지난 4월8일 인천광역시 지방문화재 기념물로 지정되었다. 36.119평방미터에 이르는 공의 묘역은 인천시 서구 마전동 120-4에 소재하고 있다.

공의 묘전에서 출토된 5편의 청기와로 된 묘지명에 대해서는 역사적 의미가 깊다는 문화재위원들의 찬사가 많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인천시박물관에 보존 관리할 것을 요청하여 본 종중에서는 이를 승낙했다. 지난 4월23일(음3.5) 공의 시향제에 참석한 60여명의 일가들에게도 이 사실이 알려져 긍지를 갖게 했다.

서기 1427년 세종9년에 출생한 공은 예종, 성종 때 2회에 걸쳐 공신으로 철권교서를 받았고 큰 딸이 예종의 왕비로 책봉되어 청천부원군에 봉해졌으며 48세로 생을 마쳤다.

韓基大일가 7순에도 사회봉사 계속 교직생활 40년 정년퇴직 후에도 어린이 안전교통정리

2001년7월1일자 본 종보에 '교직생활 46년 정년퇴임후에도 어린이 안전을 위해 교통정리'라는 제목으로 보도된 바 있는 한기대(71·전 서울일원초등학교 교사)일가는 3년이 지난 지금도 사회봉사활동을 계속하면서 여러 유관기관으로부터 표창, 시민대표 위촉을 받는등 교직자로서의 모범을 보여 주변으로부터 칭송을 받고 있다.

2002년8월에는 한국교육평론문화회 4대회장으로 선임되었고, 2002년1월에는 서울시의 제1기 '새서울 자원봉사2002' 사이버교육과정에서는 4백점 만점에 390점이라는 우수한 성적을 받는등 7순에 들어서도 사회활동은 끊임줄 모른다.

독일에 유학중인 한지윤양

뉘른베르크 국제오르간콩쿠르 1위



독일에 유학중인 오르가니스트 지윤(여·30) 일가가 지난 6월30일 폐막된 '뉘른베르크 국제 오르간콩쿠르'에서 1위의 영예를 차지했다. 1968년에 창설돼 올해로 37회째를 맞는 세계적 권위의 이 콩쿠르에서 한국인으로는 지윤일가가 처음으로 입상했다.

정온공 신도비, 문천공 묘비 제막 한만년일가 사제로 새로 세워져



정온공(靖溫公, 휘·興一)의 신도비와 문천공(휘·여필)의 묘비가 후손인 고 구봉 韓萬年일가(전 관공과·정선공과 중친회장)가 출연한 사제로 경기도 여주 강천면 부령리 산1번지(가마섬 선영)에 새로 세워져 지난 5월28일 제막되었다.

문정공과(계희) 후손이며 정선공과 상무이사 만일가가 주관으로 진행된 제막식에는 50여명의 일가들이 참석했으며 송암 익수일가의 경축사, 만년회장의 아들인 성구박사의 답사가 있었다.

구암 한백겸(久菴 韓百謙)공의 아들로 우의정을 지낸 흥일공은 국군(國舅·국왕의 장인) 한준겸(韓浚謙)공의 조카이며 좌의정 한효순(韓孝純)공의 종손이다.

히말리아산 완등한 산악인 한왕용일가 작년 이어 두번째 '클린마운틴' 운동 앞장



국내 3번째로 히말라야 8,000m 14좌를 완등한 산악인 한왕용(38·에델바이스 홍보부장)일가는 산악인들이 히말라야 고산에 버리고 간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 '한국 K2 클린마운틴 원정대' 대장을 맡아 대원 6명과 함께 60일 일정으로 지난 6월8일 세계 2위봉 K2(8,611m) 현지로 떠나 산악청소를 마치고 7월 30일 무사히 귀국했다.

왕용일가의 '클린마운틴' 운동은 지난 해 10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이다.

20년간의 숙원사업으로 회관 건립 한상흥회장, 철도공상회관 완공



(사)국가유공자전국철도공상회(公傷會) 회장인 한상흥일가는 20여년간의 숙원사업인 회관건립을 완공, 지난 2월12일 철도청장, 흥익회장등 내외귀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입주식을 거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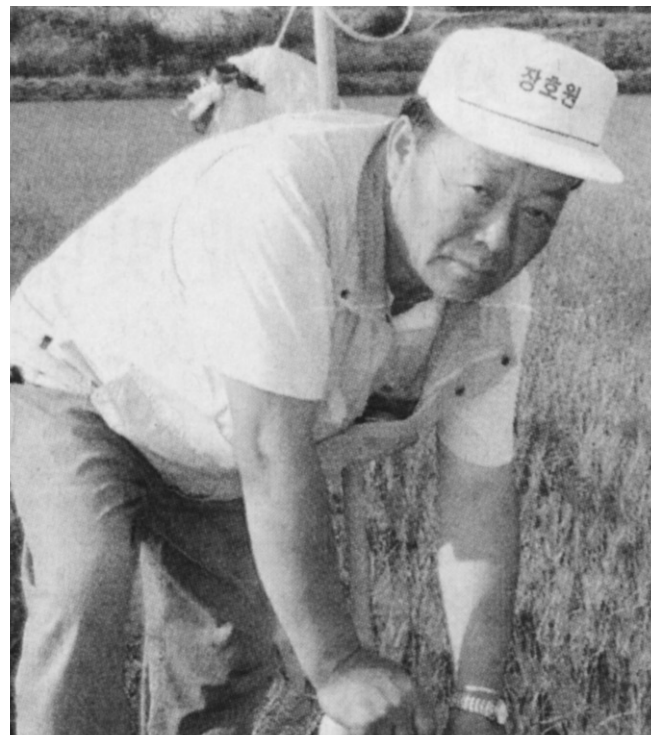
한경진양, 미스코리아 선

서울예술대(2년) 재학중인 재원



한문의 딸 경진(19·경기 진) 일가가 지난 6월13일 제48회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서 미스코리아 선으로 뽑혔다. 경진 일가는 서울예술대 시각디자인학과 2년에 재학중인 재원이다.

한천희일가 농사만으로 1억 소득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 와현리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천희(52)일가는 농사만으로 연간 1억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어, 이미 10여년전인 93년에 산업철담훈장을 받는등 '스타농민'으로 한씨가문을 빛내고 있다.

천희일가의 영농현장은 장호원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승용차로 10여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논 2만평에서 한해 쌀 1400가마(40kg기준)를 수확하고 있으며 밭 8천여평에는 복숭아 나무 250구루, 화향나무 1만구루가 심어져있다.

지난 93년에는 3백평당 쌀 11가마(40kg기준)를 생산하는 기록을 세워 '전국 쌀증산왕'으로 뽑혔으며 과수생산에서도 품질 개선등을 통해 큰 수익을 올렸다.

청주한씨 역사전시관에 전시할
귀중한 자료를 찾습니다

중앙중친회 내방 일가들

- ▲天洙 서울 마포구
- ▲영희 " 금천구
- ▲相九 " 송파구
- ▲희명 " 강남구
- ▲相鴻 " 중랑구
- ▲윤석 경기 동두천
- ▲東億 서울 강동구
- ▲원형 " "
- ▲기섭 충북 충주시
- ▲창호 서울 양천구
- ▲秉吉 워싱턴 총영사
- ▲相根 서울 금천구
- ▲相瑞 " 구로구
- ▲相哲 경기 고양시
- ▲敬洙 " 양주시
- ▲福洙 전남 나주시
- ▲相珍 미국 L.A
- ▲求寅 경기 파주시
- ▲愚仙 서울 서초구
- ▲俊熙 경기 안산시
- ▲相鎬 인천 부평동

- ▲東洙 서울 영등포
- ▲昶郁 " 동대문
- ▲京禮 " 관악구
- ▲금순 경기 고양시
- ▲경창 서울 구로구
- ▲민진 경기 수원시
- ▲圭皖 서울 중랑구
- ▲충권 경기 안양시
- ▲기홍 " 하남시
- ▲外得 서울 마포구
- ▲一男 " 동대문
- ▲光秀 " 성북구
- ▲相玉 대구 동구
- ▲吉洙 서울 광진구
- ▲奎煥 " 영등포
- ▲在洙 " 관악구
- ▲健熙 " 송파구
- ▲三洙 " 은평구
- ▲上愚 경기 군포시
- ▲鍾天 " 평택시



안산시 7월의 문화인물

백졸제(白拙齋) 한응인(韓應寅)

충정공(忠靖公) 한응인은 조선중기 선조(宣祖)대에 활약했던 문신으로 알성문과에 급제하여 여러관직을 거쳐 육조판서(六曹判書)와 우의정을 역임하고 청평부원군에 봉군되었다.

임진왜란 때 명나라의 황제를 설득하여 원군의 출병을 청원하여 지원 나온 명나라 장군 이여송을 접반관으로 맞아 팔도 도순찰사로 평양성을 탈환, 국가를 수호한 공으로 선무1등원종공신, 선조께서

귀경시 안전하게 호송한 공으로 호성원종1등공신, 충정공 선생의 사당(不祧廟)에 봉안되어 있는 영정과 유물 10점이 경기도 유형문화재 153호로 묘역 일원이 경기도 기념물 제 157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초중고 교과서에도 위대했던 충정공의 임진왜란사(평양성 탈환 기타 전적)등이 기술되어 있다.

신도비는 묘역의 50m 전방에 위치하고 있다 (위치 : 안산시 상록구 사사동 산 18-6)

石峯韓濩, 올해 탄신 460주년

박경원 기념사업회장, 종친회 방문



◆현수중앙종친회장(오른쪽)이 기증받은 한석봉 시 족자를 들어보이고 있다. 왼쪽은 박경원기념사업회장.

석봉 한호(石峯 韓濩 · 1543년 ~ 1605년)는 올해로 탄신 460주년을 맞는다. 천하 명필 서예가로, 그리고 천자문(千字文)을 한글로 풀이하여 오늘에 전한 교육의 선구자로서, '한석봉' 할아버지는 우리 한씨가문의 자랑스러운 큰 별이다.

그의 탄신 460주년을 맞아 '석봉 한호선생 기념사업회' (회장 박경원 · 朴敬遠 · 전 강원도지사)는 그에 대한 충절, 학덕, 예술을 연구하고 유적을 발굴 보존하므로써 그의 생애를 재조명하고 위훈을 크게 선양하여 국민정서교육혁신에 공헌한다는 목적 아래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박경원회장 등 기념사업회 임원들은 지난 7월28일 중앙종친회

로 韓瑀洙회장을 방문, 사업계획 등을 설명하고 협력방안 등에 관해 협의했다. 종친회측에서는 陽命상임고문, 春植부회장(예빈윤공파회장), 益洙부회장(강원도회장), 百

◆부회장(장학담당), 星燮부회장(종모담당), 東元부회장(종보담당)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날 한석봉 시(詩) 족자를 종친회에 증여한 박회장은 이어 益洙부회장이 마련한 오찬자리에서 앞으로의 기념사업에 관해 설명하면서 ①자료수집 및 연구 ②기념촌 조성 ③한모(韓母 · 白貞夫人)자애교육원(가칭 백화당) 설립 ④추모 및 기념사업 ⑤장학회 설립 및 후학 양성 ⑥기타 위 목적과 관련되는 사업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해시종친회 10주년 기념식

임원진 보충, 송조돈목정신 강조



진해시종친회(회장 成基)는 지난 5월22일 오전 11시 시내 황실 뷔페(상덕부회장 경영)에서 80여

일가들과 柄秀경남도종친회장등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10주년 기념식 및 총회를 성대히

거행했다. 정훈일가의 사회로 진행된 총회에서는 10주년을 계기로 종친회의 활성화를 위해 상덕일가와 관식일가(일미회집 경영)를 새로 부회장으로 선임, 임원진을 보강했다. 成基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선조님의 빛나는 업적을 후손들에게 널리 알리고, 우리 일가들은 모두가 숭선수법하는 마음과 송조돈목의 정신으로 단합하고 화목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양섭(3대), 수익(4대) 전 회장에게 공로패, 상기일가의 부인 김계옥씨에게 장한 며느리상, 정훈일가에게 공로상이 각각 시상되었다.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 ▲고문 : 정동, 준근, 석정, 청황.
- ▲감사 : 수익, 양섭
- ▲회장 : 성기 ▲부회장 : 영출



◆17세 서양군(西陽君)의 묘소에 새로 세운 묘비를 양절공·장간공 후손들.

“많은 투고를 기다립니다”

「청주한씨보」는 한씨일가들의 갖가지 정보를 전하는 소식지입니다. 따라서 많은 정보가 게재될수록 유익한 좋은 소식지가 될 수 있습니다.

각 지역과 각 종파의 행사, 한씨에 얽힌 정보, 일가들의 선행과 효행 등에 관한 많은 투고 바랍니다.

기사에는 관련인사들의 이름, 행사일과 장소, 행사내용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관련사진도 함께 행사가 끝나는데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기업, 자영업을 경영하거나 전문직을 갖고 계시는 일가분들과 그 밖의 모든 일가분들 중에서 중보를 통한 홍보가 필요한 분께서는 중앙종친회 사무국에 연락을 해주기 바랍니다. 직접 방문, 취재하여 홍보기사를 게재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보 편집실>

韓七錫翁, 91세 생신 · 출판기념회



성호 칠석옹이 지난 5월8일 경기도 화성군 발안리 자택에서 가족들과 많은 친척, 친지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서전 '아흔하나에 부르는 청춘가' 출판기념을 겸한 91세 생신축하연을 가졌다.

琚洙중앙회장과 陽命상임고문은 이날 축하연에 참석, 외병중인 칠석옹의 손을 잡고 생신을 축하하면서 조속한 쾌유와 만수무강을 바라는 인사를 했다.

상현(104세) · 갑수 고문 장수축하회

현수회장이 자비 부담으로 마련



상현고문



갑수고문

琚洙 중앙총친회장은 지난 6월14일 정오 서울 시내 프라자호텔에서 20여명의 중진 일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종친회에서 가장 연로하신 相賢(104세), 甲洙(92세) 두 고문의 만수무강을 축원하는 모임을 가졌다.

현수 회장의 자비부담으로 마련된 이날의 모임에는 주빈인 상현, 갑수 두 고문의 외 昇洙 명예회장과 17대 의원으로 당선된 和甲, 光元, 善教 일가, 경향각지의 중진일

가들이 참석했으며 지난 4월29일 당선일가 축하회에 불참했던 광원, 선교 두 일가에게 당선축하패도 전달되었다.

현수 회장은 인사말에서 "올해 104세인 상현 고문과 92세인 갑수 고문의 장수는 우리 한씨 가문의 큰 자랑"이라고 찬양하고 "지금과 같은 건강을 오래도록 유지하여 만수무강 하기를 기원한다"고 축원했다.

승수 명예회장과 화갑 고문도 상현, 갑수 두 고문의 건강과 만수무강을 기원한다고 축원했다.

종친회 모임에 빠짐없이 참석할 정도로 건강한 상현고문은 "일찍 자고 새벽 4시경 일어나면 하루종일 절대로 눕지 않고 의자에 앉아 생활하며 과일과 야채를 많이 먹고 소식을 한다"고 건강의 비결을 밝혔다.

뉴욕한씨종친회 야유회



한태홍 뉴욕총친회장

뉴욕한씨종친회는 지난 6월 20일 화창한 날씨를 맞아 약 450명의 일가 부부들이 자녀들을 동반하고, 뉴욕한인회 회장을 비롯 35명의 단체장들이 축하내빈으로 참석한 가운데 야유회를 갖고 위업을 남긴 조상들의 얼을 되새기는 한편 노래자랑등 갖가지 즐거운 여흥으로 일가들간의 유대와 화목을 다졌다.

1·2부로 나누어 진행된 야유회는 먼저 1부순서에 따라 조상에 대한 묵념과 간소한 제례, 이어 야유회가 무사히 끝날 수 있도록 기원하는 산신제를 올렸다.

태홍 뉴욕총친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종친들이 추억을 나눌 수 있는 오늘과 같은 행사는 이민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에게 큰 활력소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오는 11월에 예정하고 있는 연말파티에도 많은 일가들이 참석하여 뜻깊은 정담도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갖기 바란다"고 많은 일가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현수 중앙총친회장은 동태 사무총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뉴욕종친회의 번영과 종친들의 건강·화합을 바란다"고 격려했으며 뉴욕한인회장과 각 단체장들도 축사에서 "전례없는 종친회 행사를 보면서 태홍 회장의 지도력과 청주한씨 일가분들의

단합된 모습에 부러움을 느낀다"고 찬사를 보냈다.

태홍회장과 뉴욕한인회장이 심사와 심판을 본 2부에서의 부부 및 개인 노래자랑, 2인3각 달리기, 줄다리기 등 참가자 모두가 참여하고, 환호하여 이날 행사의 절정을 이루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이 아쉬웠다. 일가들은 11월의 연말파티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면서 아쉬움을 남긴채 석별의 정을 나누며 헤어졌다.

이날 야유회를 위해 많은 일가들이 푸짐한 상품과 음식을 보내왔다.

- ▲태홍 회장: 타월 400명분 ▲택선 수석부회장: 450명분 갈비, 음료수, 숙박, 일용품, 글러시 상품권 ▲상기 동부회장: 라디오 30대, 금 일봉 ▲기연 부회장: 김치, 김, 밀반찬 ▲태희 부회장: 금 일봉, 음료수 ▲민호 봉사부장: 생갈비 4박스 ▲기찬 재정부장: 과일, 숙박 ▲성묵 애경사부장: 음료, 소다수 300명분 ▲범희 사업부장: 금 일봉, 3대일간지 광고료 부담 ▲홍식일가: 금 일봉 ▲신일일가: 금 일봉 ▲극동맥주 일가: 금 일봉 ▲국주일가: 과일, 숙박 ▲중국연변일가합동: 음료수, 소다수 ▲동태사무총장: 450명분 밥, 반찬

청 안 산 약 회

호명산 등반



5월의 오서산(烏棲山·791m) 산행은 청한산악회 창립 7주년 행사로, 6월의 호명산(虎鳴山·632m) 산행은 창립 7주년만에

처음으로 참가회원 40명 전원이 정상에 오른, 뜻 깊은 즐거운 산행이었다.

6월27일 오전 8시에 출발한 버

스는 호명산록에 가까워지면서 산의 상쾌한 정기를 마시며 꾸불꾸불한 산허리의 포장길을 올라 10시30분에 산상에 도착했다. 위령탑에 참배한 다음 인공호수인 호명호 주변도로를 일주하고 팔각정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계단을 내려와 정상의 험터에서 정복의 기쁨을 같이하며 준비해간 도시락과 소주를 곁들여 축하의 건배를 들었다.

하산 길에는 울창한 숲속을 지나면서 땀을 따기도 하고 계곡물에 발을 담그며 즐거운 산행을 마무리 했다. 산행을 마친 회원들은 相一 총무의 사전답사 덕분에 만족스럽고 즐거운 산행을 할 수 있었다고 찬사를 보냈다.

가평군 외서면 청평리 소재 호명산은 옛날 인적이 드물었던 때 호랑이들이 많이 서식하면서 포

효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전해진다.

5월23일의 오서산 산행은 50명이 참가하여 31명이 정상에 올랐다. 홍성군 광천읍, 보령시 청소

면·청리면으로 경계를 이룬 오서산은 충남 제2의 고봉으로 천수만 일대를 향해하는 선박들의 나침반 역할을 한다고 해서 '서해의 등대산'이라고도 한다.



韓昌熙일가, 충주시장에 당선

한 창희 (50)일가가 지난 6월8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한나라당 공천으로 입후보하여 충주시장에 당선되었다.

창희일가는 청주고교,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후 한나라당 대변인실 국장, 청년국장, 충북지구당 사무처장, 충주시지구당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중앙당 직능정책위 보건복지위원장, 중앙정치연수원 부원장을 맡고 있다.

창희일가는 시장취임사와 홈페이지를 통한 인사말에서 "열린행정, 참여행정, 자율과 능동적인 변화와 개혁을 통한 행정을 주인으로 모시는 투명한 행정을 실천하여 잘사는 충주, 신바람나는 충주, 희망찬 충주, 살고 싶은 충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여러 고위관직 선비정신으로 봉직

승수 명예회장, 한문 빛낸 자랑스러운 일가

승수 명예회장은 한씨 가문을 빛낸 자랑스러운 일가이다. 그가 역임한 화려한 여러 고위관직이나 세계무대에서의 활약상이 돋보였기 때문만은 아니다. 서울대 경제학 교수로 많은 인재를 배출시켰고, 청렴한 선비정신으로 일관한 명예로운 정·관계 은퇴, 높은 경륜, 고매한 인격 때문이다.

그는 부총리와 3개부처장관을 역임했을 뿐 아니라 정치에 입문, 3선(13·15·16대) 의원을 지냈으며 유엔총회 의장을 맡는 등 국제적으로도 널리 알려져있다.

그는 영국 요크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후 ▲세계은행 재정자문관 ▲요르단국 재정자문관 ▲서울대 교수 ▲상공부장관 ▲주미대사 ▲대통령비서실장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 ▲의교통상부장관 ▲유엔총회 의장 등을 역임했다.

▲유럽공동체 학술상 ▲동탑산업훈장 ▲벨기에 그랑크로소왕관 훈장 ▲청조근정훈장 ▲자유중국 대수경성훈장 등을 받기도 한 승



UN총회에서 코페난 사무총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의사봉을 두드리는 한승수의장.

“힘쓰는 자리에서도 권력행사 한일 없다” 정계 은퇴후 출신구민에게 보은의 인사

수 명예회장은 유럽예산의 생성과 기능(영문), 영국과 구주공동체(영문), 국가와 건강(영문), 태평양시대와 한국, 신경경제정책론 등 많은 저서를 내놓았다.

승수 명예회장은 지난 6월24일 국회의원 출신구였던 춘천에서 약 5백명의 시민들을 초청, 16년간의 정·관계 생활을 마치고 명예롭게 은퇴할 수 있도록 도와준

데 대해 감사하는 보은행사를 가졌다. 승수 명예회장은 지난 1월 초 17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 정계은퇴를 선언했었다. 승수 명예회장은 인사말을 통

해 “춘천시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세계무대에서도 활약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 춘천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지난날 권력을 가진 힘쓰는 자리에도 있어 봤지만 부당하게 권력을 행사한 일이 없으며 청렴결백한 선조의 선비정신을 이어 받아 오직 명예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승수 회장은 청빈한 선비로 유명한 고려말의 문신 몽계공 한철충(夢溪公·韓哲沖·13세)의 후손이다. 1353년 문과에 급제한 후 여러 관직을 거쳐 전법판서(典法判書)에 오른 몽계공은 목은(牧隱) 이색(李穡)이 “학문과 문장을 내가 추종할 수 없고 지조를 삼가서 지키는 곧 승상(丞相) 후작을 봉할 만 하다”고 격찬한 대표적인 선비였으며, 불사이군의 절의로 태조, 태종의 초빙에도 응하지 않고 경남 합천으로 행적을 숨길 정도로 선비정신이 투철했다.

이날 모임에서 ‘청주한씨춘천시종친회장년회’는 회원일동의 이름으로 승수 명예회장에게 감사패를 증정했고, 시인 이영춘씨는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이라는 제목의 축시를 낭송했다.

축시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 시인 이영춘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 한 편을 보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시 한 편을 읽었습니다.
시는 겉모습이 아름다우면서도 내용이 알차야 합니다.
진실하면서도 상징적이어야 합니다.
여기 그런 한 분이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여기 그런 분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었습니다.
그 분은 우리 춘천의 상징이었고 자존심이었습니다.
가끔 서울에 가면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춘천에는 한승수가 물러나면 그 뒤를 이을 인물은 누구냐고?
춘천 서면은 몰라도 한승수는 안다고...
(중략)...우리춘천과 이 나라를 빛내주신 장관님
2001년 9월, 당신이 유엔총회 의장이 되시던 날 이 곳 춘천은 온통 축제의 물결로
여기저기서 폭죽을 터뜨리며 환호하고 기뻐 춤 추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히 귀청을 울리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장관님!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그 어려운 정치판에서도
항상 깨끗이 학자적 양심과 진실된 자세로 정도를 걸으셨고
높은 나뭇가지 위에 앉으면 바람이 더 세계 분다는 이치 대로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는 무리들의 외중에서도 항상 깨끗이
고매한 인품을 잃지 않으셨던 분,
경세제민의 이상 실현으로 이 지역 발전과 이 나라의 국익을 위해
우리들의 귀가 되고 입이 되어 불철주야 혼신에 혼신을 다하신 분,
(중략)...왼손이 한 일 오른손이 모르게 한다는 진리라도 깨우치신 양
섭섭함과 아픔을 감내하면서도 오로지 외길로 일만 하신 분,
좌절과 실망도 다 성공으로 이끌어 가셨

기에
오늘 이 자리가 더욱 고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진정, 깨끗하게 떠나시는 그 뒷모습 더욱 아름답습니다.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삶을 사신 장관님!
이제 우리는 당신이 이룩해 놓은 터전과 큰 발자국 위에
학자적 양심과 정치의 정도 위에
다시 큰 역사를 새길 것입니다
(중략)...이 고장의 후학들과 후배들을
뒤에서 밀고 땅기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당신의 고매한 후광 더욱 뜨겁게 뜨겁게 타 오르시길 기원합니다.

韓元坤일가, 강북삼성병원장 취임



한원곤 일가가 지난 5월28일 삼성의료재단 강북삼성병원 진료부원장에서 원장으로 승진, 임명되었다.
원곤일가는 1976년 연세대 의대를 졸업한 뒤 강북삼성병원 외과주임교수로 재직하면서 진료부원장을 역임했다.

한순현일가, 보루네오 사장 취임



한순현일가가 BIF 보루네오 사장에 취임했다. 순현 신임 사장은 지난 6월23일 서울 조선히텔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가구 뿐 아니라 주거와 관련된 모든 제품을 공급하는 ‘토털 주거 인테리어 서비스’(THIS·Total Housing Interior Service) 기업으로 재도약하겠다”고 밝혔다.

한경택일가, 파스퇴르유업 대표 취임



한경택일가가 지난 6월23일 한국야쿠르트 상무이사에서 자회사인 파스퇴르유업 대표이사로 승진, 선임되었다.